

복구, 선제적 가뭄 대응 위해 물놀이장 조기 종료



폭염대응에 투입됐던 살수차가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에 물을 대는 모습

/광주 북구청 제공

당초 계획보다 3일 앞당겨 17일 물놀이장 조기 종료

살수차·양수기 활용 농업용수 확보...생활 속 절수 홍보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복구(구청장 신수정)가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조기에 종료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주민 절수 홍보에 나서는 등 선제적인 가뭄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3일 복구는 당초 이달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동강대학교 운동장과 산동고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을 17일까지 운영하고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폭염과 마른장마 등으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내려졌다.

물놀이장 운영 과정에서도 시설 규모를 축소해 소비되는 물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당초 물놀이장별 2개소씩 운영하던 유아풀을 1개소로 줄이고 분수

터널 가동을 중단해 하루 평균 약 300톤의 물을 절감한다.

또 복구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폭염 대응에 투입됐던 살수차 4대를 농업용 저수지 용수 확보에 활용해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수기 114대의 가동상태와 보관 위치, 규격, 양수능력 등을 사전에 확인해 농업용수 부족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과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단체 등을 통해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자는 일상 속 절수 실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수정 복구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가뭄 상황 속 용수 절약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금의 물 한 방울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민들께서도 일상 속 가뭄 극복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구는 앞으로도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 여건을 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뭄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실천을 유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서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소액체납자 체납 원인·납부 여건 집중 조사

체납 유형별 맞춤형 납부 지원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방세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100만원 미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 납부 여건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주소와 연락처 등 체납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기존 체납징수 업무와 연계해 하반기 체납액 정리와 후속 징수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에 맞춰 대응한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연계한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조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해 재산조치와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일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개인정

보 보호, 방문조사, 민원 응대, 안전 수칙, 체납관리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무조건적인 체납액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성실한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정하고 따뜻한 지방세입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체납자 관리에도 힘쓴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체납징수 담당 부서와 공유해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

로 이어간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반면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서구는 체납자의 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해 행정력과 징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실질적인 체납 해소와 재발 방지에도 힘쓴다.

체납관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에 속도도 낼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본 교육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